

1. 다음은 새로 발간된 어떤 책의 이야기이다. 밑줄 친 부분을 한자 성어로 옮기면?

때로는 배꼽잡게 하고 가끔은 가슴 찡하게 만드는 전화 상담원들의 에피소드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이 그대로 배어 있다. 최근 KT 부산 고객센터가 펴낸 ‘고객은 多(다) 우리는 禮(예)’는 고장 신고(110)나 전화 번호 변경 신청(100)을 상담하는 KT 고객센터의 은밀한 일기장이다. 이 책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상담원이 고객의 집까지 직접 가서 일을 처리해 준 따스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중국집 배달원을 화난 고객으로 오인, 도망갔던 웃지 못할 촌극도 있다.

- ① 乙丑甲子 ② 甲子乙丑 ③ 甲男乙女
 ④ 甲乙南女 ⑤ 南男北女

2. 다음 한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甲, 田, 申, 由

- ① 음이 같다.
 ② 부수가 같다.
 ③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④ 천간을 나타내는 한자들이다.
 ⑤ 지지를 나타내는 한자들이다.

3.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간지를 쓰시오.

태어난 해의 서기 연도와 띠를 알면 간지 연도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2004년생으로 원숭이 띠인 사람이 태어난 해를 간지로 나타내면 이다.

4. 다음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螢雪之功

- ① 음은 ‘형설지공’이다.
 ② 뜻풀이 순서는 ‘1-2-3-4’이다.
 ③ 진나라 차윤과 손강의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④ 뜻풀이는 ‘낮에 밭 갈고 밤에 책 읽는다.’이다.
 ⑤ 속뜻은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여 얻은 보람’이다.

5. 다음 문장의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어를 쓰시오.

初學先須 : 처음 배우는 사람은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야 한다.

6. 다음 한자 성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日就月將

- ① 학문이 날로 달로 자라거나 발전함을 뜻한다.
 ② ‘就’의 뜻은 ‘나아가다’이다.
 ③ ‘將’의 뜻은 ‘장차’이다.
 ④ ‘일취월장’이라고 읽는다.
 ⑤ ‘將’은 ‘就’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7. ‘立身揚名’의 짜임으로 바른 것은?

- ① 술목 관계+술목 관계 ② 주술 관계+주술 관계
 ③ 수식 관계+수식 관계 ④ 술보 관계+술보 관계
 ⑤ 주술목 관계+주술목 관계

8. 다음 고사와 가장 관련 있는 성어는?

옛날 중국의 탕 임금은 대야 바닥에 글을 새겨 두고 세수할 때마다 그것을 보며 마음을 바로잡았다고 한다.

- ① 日就月將 ② 三遷之教
 ③ 日新日日新 又日新 ④ 好讀書하되 不求甚解라.
 ⑤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9.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각각 쓰시오.

然後에 知不足이요, 然後에 知困이라.

10. 다음 중 ‘文房四友’라 할 수 있는 것은?

- ① 身言書判 ② 燈火可親 ③ 乙丑甲子
 ④ 紙筆硯墨 ⑤ 竹馬故友

중3 한문

11. 다음 고사와 가장 관련 있는 성어는?

맹자가 어릴 적 집을 떠나 공부하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다. 그 때, 어머니는 베를 짜고 있었는데, 맹자가 학업을 그만 두었다는 말을 듣고는 옆에 있던 칼로 베를 싹둑 끊어버렸다. 이에 맹자가 놀라서 그 이유를 물으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학문을 그만둔다는 것은, 내가 짜던 베를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에 크게 깨달은 맹자는 그때부터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공자의 학통을 잇는 유가(儒家)의 큰 스승이 되었다.

- ① 晝耕夜讀 ② 燈火可親 ③ 百年大計
- ④ 三遷之教 ⑤ 斷機之戒

12. 다음 문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속뜻은?

至要是 莫如教子라.

- ① 남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②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③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④ 신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3. 다음 내용에서 유래한 고사 성어를 쓰시오.

어느 날, 한고조는 한신과 여러 장군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한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과인은 몇 만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장수감이라고 생각하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폐하께서는 한 10만쯤 거느릴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나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예,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고조는 한바탕 웃고 나서 물었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10만 장수감에 불과한 과인의 포로가 되었는고?”
한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오나 폐하,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옵니다. 폐하께서는 병사의 장수가 아니오라 장수의 장수이시옵니다. 이것이 신이 폐하의 포로가 된 이유의 전부입니다.”

14.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된 성어는?

유치원생 영희는 친구들이 자꾸 놀리고 괴롭히자, 초등 학교에 다니는 영철이 오빠를 데리고 나갔다. 영희의 친구들은 키가 큰 영철이를 보자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 ① 三人成虎 ② 狐假虎威 ③ 六何原則
- ④ 斷機之戒 ⑤ 百年河清

15.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성어는?

좀 낮고 못한 차이는 있으나 서로 엇비슷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① 狐假虎威 ② 晝耕夜讀
- ③ 多多益善 ④ 仁人心也, 義人路也
- ⑤ 五十步百步

16.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어를 쓰시오.

修身 - □□ - 治國 - 平天下

17. <보기>와 같이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장은?

<보기>
참된 인격자는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 ① 君子求諸己 ② 學然後知不足
- ③ 至要莫如教子 ④ 莫交三公 慎吾身
- ⑤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18.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修身者先正其心

- 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 ② 마음보다 행동이 항상 앞서야 한다.
- ③ 자신의 처지로 미루어 나의 마음을 이해한다.
- ④ 실력도 없으면서 배경을 앞세워서 위세를 부린다.
- ⑤ 몸을 수양하고자 하는 이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19.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어울리는 성어는?

선미 : 세진아! 너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세진 :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잖니. 걱정은 많이 되는데 공부가 안 되네.
선미 : 나도 너의 마음을 알아. 나도 요즘 그렇잖아.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자구! 아직 늦지 않았어!
세진 : 역시 넌 내 맘을 알아주는 둘도 없는 친구야^^*

- ① 知己之友 ② 貧賤之交 ③ 莫逆之友
- ④ 推己及人 ⑤ 先人後己

20. 다음 밑줄 친 ‘則’의 풀이(쓰임)을 쓰시오.

水至清則無魚하고 人至察則無徒니라.

중3 한문 정답 및 해설

1. ③
 - 乙丑甲子(을축갑자) : 무슨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순서가 뒤바뀔을 이르는 말
 - 甲男乙女(갑남을녀) :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 → 평범한 사람을 일컫는 말
 - 南男北女(남남북녀) : 남쪽은 남자 북쪽은 여자 → 우리 나라에서 남쪽 지방은 남자가, 북쪽 지방은 여자가 아름답다는 말임
2. ②
 - 甲 첫째 천간 갑 (田, 0)
 - 田 밭 전 (田, 0)
 - 申 아홉째 지지 신 (田, 0)
 - 由 말미암을 유 (田, 0)
3. 甲申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甲申) (乙酉) (丙戌) (丁亥)
4. ④

螢雪之功(형설지공) : 반딧불이의 눈과 공로 → 고생을 하면서 얻은 보람
5. 立志

뜻을 세우다 → 立志(입지)
6. ③

제시된 ‘將’의 뜻은 ‘나아가다’이다.
7. ①

술목 관계 + 술목 관계

 - ┌ 立身(몸을 세움) + 揚名(이름을 날림)
 - └ 立身揚名(입신양명) : 몸을 세워 이름을 날림
8. ③

나날이 더욱 새로와짐을 뜻하는 문장을 찾는다.

 - ① : 날로 달로 자라거나 발전함
 - ② :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훌륭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세 번 이사한 일
 - ④ : 독서를 좋아하되 글의 뜻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는다.
 - ⑤ :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9. 學, 教

배운 다음에야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뒤에야 곤궁함을 안다.
10. ④

옛 사람들의 문방 용품인 紙筆硯墨(지필연묵)을 文房四友(문방사우)라고도 한다.
* 紙筆硯墨(지필연묵) : 종이, 붓, 베틀, 먹
11. ⑤

斷機之戒(단기지계) : 맹자가 수학(修學) 중도에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베틀의 실을 끊어서 훈계하였다는 고사로서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과 같다는 뜻임

12. ②

‘莫如’는 최상급 비교형으로서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므로 ‘莫如’ 뒤에 나오는 것이 ‘가장~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 지극히 중요한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한 것이 없다.
13. 多多益善

고사 성어는 유래와 속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 多多益善
14. ②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 부림을 비유한 고사 성어를 찾는다.
15. ⑤

오십 보 도망친 사람이 백 보 도망친 사람을 보고 겁쟁이라고 비웃는다. → 좀 낮고 못한 차이는 있으나 서로 엇비슷함을 비유함
16. 齊家

<대학>의 ‘8조목’ 가운데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를 나타낸 것이다. 그 뜻은 ‘자신의 몸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한 후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고 나아가 나라를 다스려 천하는 평안하게 한다.’이다.
17. ①

君子 求諸己 小人 求諸人 : 군자는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諸(어조사 저) = 之於
求諸己 = 求之於己 : 자기에게서 그것을 찾는다.
18. ⑤

몸을 수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 주술목 확장 구조
19. ①

知己之友(지기지우) : 나를 알아주는 벗 ‘之’의 쓰임

 - ~의 : 주로 명사 다음에 ‘~의’가 된다.
예) 漁父之利, 犬馬之勞
 - ~하는(한) : 주로 동사 다음에 ‘~하는(한)’이 된다.
예) 莫逆之友, 知己之友
20. ~하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함께 하는) 무리가 없다.